

22개국 유엔참전용사에 마스크 200만장 전달

해외 독립유공자·유족도 지원

국가보훈처와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은기)는 지난해 5월에 이어 올해 1월, 두 번째로 22개 유엔참전국 참전용사에게 방역마스크를 지원했다.

이번에 22개국에 지원한 마스크는 200만장으로 지난해 5월 전달한 100만장을 포함하면 300만장이 된다. 이번 마스크는 전체 유엔참전용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에 100만장이, 나머지 21개국 참전용사에게 100만장이 전달됐다.

마스크에는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는 응원 메시지인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이라는 문구가 부착됐다.

유엔참전용사 마스크 보훈외교는 지난해 한국PR협회가 선정한 2020년 한국PR대상 해외PR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외교부 공공외교위원회가 선정한 2020년도 공공외교 우수사례 베스트협업상을 수상했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미국·중국·러시아 등 해외 15개국 거주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도 방역마스크 3만장을 지원했다.

보훈교육연구원 문화총서 발간

보훈교육연구원(원장 이찬수)은 보훈의 역사, 이념, 의미, 내용 등을 대중의 눈높이에서 정리한 인문교양 도서 ‘보훈문화총서’를 출간했다. 보훈교육연구원은 앞으로 보훈의 가치를 복지, 보건, 통일 등 보훈의 다양한 영역별로 정리해 보훈문화총서로 발간할 예정이며 이번에 우선 7권을 선보였다.

이번에 출간된 총서는 △복지로 읽는 보훈 △보건으로 읽는 보훈 △보훈의 여러 가지 얼굴 △남에서 북을 다시보다-탈북 박사들이 보는 북한의 보훈 △통일로 가는 보훈 △보훈 3.0 시민과 함께 보훈 읽기 △가족과 함께하는 보훈교실 등이다.

이번에 발간된 ‘보훈문화총서’는 전국의 일반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권당 가격은 13,000~16,000원이다.

나라사랑 narasarang shinmun

발행일 2021년 2월 1일
발행처 국가보훈처 발행인 황기철
대표전화(정책·민원·상담) 1577-0606
편집·배포 044)868-0746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본지에 수록된 내용은 국가보훈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창간 1963년 9월 19일 홈페이지 www.narasarang.kr

기사 중 QR코드를 통해 동영상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난달 20일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경북 청도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호국의영웅 고 전원식 일병 귀환행사에서 고인의 자녀에게 ‘호국의 얼 함’을 전달하고 있다.

“호국영웅 70년의 기다림 끝 가족의 품으로”

전원식 일병·반철환 하사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

경기도 가평·인제에서 발굴된 고 전원식 일병과 고 반철환 하사의 유해가 70년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고 전원식 일병의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가 지난달 20일 경북 청도군청에서, 고 반철환 하사의 귀환 행사가 지난달 21일 경북 군위 산성면 주민복지회관에서 각각 열렸다.

국가보훈처와 국방부가 공동주관한 이번 귀환행사에서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유가족에게 고인의 참전과정과 유해발굴 경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신원확인통지서와 함께 호국의 영웅을 최고의 예우로 맞는 ‘호국영웅 귀환패’와 유품 등이 담긴 ‘호국의 얼 함’을 전달했다.

70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고 전원식 일병은 1925년 경북 청도군에서 태어나 슬하에 딸을 하나 두고 군 입대 후 경기도 가평 지역 전투에서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 전원식 일병의 유해는 경기도 가평 주민의 제보에 의해 2015년에 발굴됐으며 고인의 딸인 전

정숙씨가 2019년 유전자 시료채취에 참여해 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 반철환 하사는 1924년 경북 상주군에서 태어나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입대 후 강원도 인제 일대에서 벌어진 노전평 전투에서 전사했다.

고 반철환 하사의 유해는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사자 유가족을 집중 탐문하는 ‘과거 대량 발굴지역의 유해자료 재분석’ 과정에서 고인의 딸 반경아씨의 유전자 시료채취를 통해 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대상 확대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까지



무공수훈자회 장례의전선양단의 대통령 명의 근조기와 태극기 전달 모습.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에게 제공되는 장례서비스 대상이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생계급여 수급자인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국가유공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을 받게 되는 국가유공자는 기존 8,212명(2020년 11월 기준)에서 올해부터 14,992여명으로

확대된다.

국가보훈처가 지원하는 장례서비스는 장례지도사 등 인력지원을 비롯해 수의, 관 등 장례용품, 장의차량 등 200만원 상당의 서비스이며,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나 장례주관자가 사망 즉시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를 통해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보훈처는 2018년부터 국가유공자 예우 정책의 일환으로,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사망 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장례서비스를 지원해왔다.

보훈처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생애 마지막까지 최상의 예우를 통해 든든한 보훈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